"특권층을 위한 경제 좌시 않을 것"

〈4면서 계속〉

– 고교 평준화는 유지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해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정책 간 불일치, 대학 서열화 등에서 원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패에서 드러나듯 대학구조 개혁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 입시제도만 변경해서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복안은.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대협약기구인 '국가 미래전략 교육회의를 설치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육 문제는 사회적인 대협약을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

국가 미래전략 교육회의에서는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미래교육 계획, 재정 확보 및 배분 방안, 대학의 특성화 계획, 초중고 공교육의 정상화 계획,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 계획을 파트너십 기반 위에서 합의·결정해 나가게된다.

– 정 후보가 제시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신 균형발전 전략'이다. 신 균형은 참여정부에서 진행한 하드웨어 이전 중심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 내 소외의 극복, 지방 균형의 내실화, 균형발전의 프로그램화를 기하는 것이다. 신 균형발전 정책의 전략적 선택은 지방 발전의 특화전략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고리를 약화시키는 개념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제외된 소외지역에 대하여 동력을 제공하고 균형의 내실화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내적 프로그램의 현실화를 통한 산-학-연-정 네트워크 구성, 국내를 벗어나 세계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 조성, 복지·의료·교육 등 사회적 여건 조성, 지방에서의 집중과 선택에 의한 클러스터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발전 아이템에 대한 집중적이고 선택적 예산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인프라를 구성하겠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입장은.

▲한미 FTA는 개방화, 세계화에 따른 도전이자, 우리나라가 선진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이자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그러나 '대외개방'과 '대내복지'는 조화를 이뤄야한다.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피해계층과 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李 후보 주장 경제는 강자 20%만을 위한 것

매년 비정규직 50여만 명 정규직 전환 추진

– 한나라당에서 부친의 친일론과 처남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정치공세를 위해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참 비겁하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수백억원의 주가조작 문제가 걸려있는 BBK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가 먼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다. 나는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감사장에 정동영과 이명박 두 후보가 떳떳하게 검증을 받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 당의 대선 후보에게 지역 현안사업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놓은 대선 공약 사업과 함께 또 다른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우주과학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광주·전남을 핵심 메카로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전남에 설립하고 광주·전남에 우주산업 관련 부품소재 산업단지를 조성·육성, 미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또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수정, 오송~광주구간을 임기 내(2012년 말) 완공하고 광주~목포구간을 2014년까지 마무리, '빠른 호남'을 만들겠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인 광주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문화·예술 관련 산업을 함께 승화·발전시키겠다. 여기에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효과적 추진과 서남권 개발을 위해 F1대회를 지원하고 서남해안을 잇는 해양 레저 클러스터를 조성, 전남을 스피드 산업과 해양·레저 산업을 잇는 관광의 메카로 만들 것이다.

– 광주·전남 지역민에 호소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남북 평화협정 시대의 한반도 운영'이며 여기에 적합한 후보라고 자부한다. 개성공단을 만든 추진력으로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개성공단의 정동영'이 '청계천의 이명박'을 이길 수 있다.

남북의 철도를 이어 대륙철도를 연결, 한국 경제를 대륙 경제권으로 진출시키겠다. 국민은 이명박의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경제는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 국민이 정동영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한반도 비전과 평화경제의 실적과 신념을 평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정리=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인터뷰 분위기는 얼굴 밝았지만 비장감 연설하듯 열정적 답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얼굴은 밝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장감이 엿보였다. 경선 승리 후 표정이 펴질만도 했지만 아직도 승리의 길은 멀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감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정 후보는 특히 경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확실한 대척점을 두면서 이 후보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후보와 '1 대 1'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였다.

녹차와 물을 번갈아 마시며 인터뷰에 응하는 정 후보는 질문을 들을 때는 질문자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가끔 펜을 들어 메모를 했고, 답변을 할 땐 마치 연설을 하듯 열정적이었으며 과감한 손짓으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호소했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는 선대위 방송콘텐츠 기획본부장인 양형일 의원을 비롯, 이평수 수행실장과 김영근 공보특보 등이 배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와 손학규, 이해찬, 김근태 의원, 오충일 대표가 22일 오후 신당 당사에서 5인 회동을 갖고 서로 손을 맞잡아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정동영 후보 대선기획단 발족

공동단장에 이강래·박명광·이호웅…당내 3개 정파 뭉쳐

대통합민주신당은 23일 정동영 대통령 후보 대선기획단을 공식 발족했다.

신당 대선기획단 공동기획단장에는 이강래, 박명광 의원과 이호웅 전 의원, 고문에는 이용희 국회 부의장이 임명됐다.

박명광 공동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선기획단에는 정 후보와 함께 경쟁했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캠프에서도 대거 참여했다"면서 "속칭 중립지대에 있던 분들도 참여해 명실상부하게 신당의 3개 정파가 하나로 뭉쳤다"고 말했다.

전략기획실장에는 민병두, 정책기획실장에는 이목희·오영식·송영길, 홍보기획실장에는 김교흥. 전병헌, 미디어기획실장에는 신중식·최규식, 방송콘텐츠기획실장에는 양형일·윤호중, 유세기획실장에는 서갑원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또 직능기획실장에는 장경수, 국민대통합기획실장에는 우원식, 법무지원단장에 우윤근, 수행단장에 서혜석·노웅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정 후보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가족행복'과 '차별 없는 성장'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는 가족행복시대 기획실장에는 유기홍. 정청래, 차별 없는 성장 기획실장에는 노영민·정봉주 의원 등이 기용됐다.

이호웅 공동기획단장과 송영길 정책기획실장, 전병헌 홍보기획실장 등은 손 전 지사 캠프에 몸 담았고 윤호중 방송콘텐츠기획실장과 서갑원 유세기획실장 등은 이전 총리 캠프에 참여했었다.

한편 신당은 지구당위원장격인 지역위원장의 경우 경선 도중에 후보 신청을 받았으나 선출은 당의 화합을 위해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鄭지지율 첫 20%선 돌파

YTN 대선후보 여론 조사 …李 54.6% 강세 여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54.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고, 이어 정 후보의 지지율이 20.4%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8일 실시된 종전 조사에 비해 이 후보의 지지율은 5.4% 포인트, 정 후보의 지지율은 9.9% 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이다.

장외의 문국현 후보는 4.1% 포인트 오른 8.4%로 3위였다.

이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4.2%,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3.4%를 차지해 종전 조사에 비해 각각 1.2%, 0.1% 포인트씩 올랐다.

범여권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정 후보가 4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 후보가 20.8%, 민주당 이 후보가 13.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매·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062)220-0524 •직통:(062)227-9600 •FAX:227-9500

화순군 공고 제2007-954호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의견 제출 및 설명회(2차) 개최 공람 공고

우리군 군 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제차 수렴 반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22일

화 순 군 수

1. 공람기간 : 2007. 10. 24 ~ 2007. 11. 13
2. 사업개요
   • 사업명 : 남광주 C.C 대중 9홀 증설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 산67-1번지 일원
   • 면 적 : 1,561,800㎡
   [기존(회원제18홀)-1,063,540㎡, 증설(대중9홀)-498,260㎡]
3.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의견 추가 제출
   • 제출기간 : 2007년 11월 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제출(개별적 의견제출 가능)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는 화순군청 도시경제과 및 화순군 춘양면 사무소에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열람 가능
4. 주민설명회(2차) 개최
   • 일 시 : 2007. 11. 13(화) 14:00 ~
   • 장 소 : 춘양면사무소 회의실
   • 내 용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도시경제과(전화 061-370-1431)로 분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당부동산
☎223-7400 핸016-632-5659
(위치: 충장로 5가 4거리 코너 2층)
투자
·소태동 자연녹지 878평. 전원주택, 공장 등 적합. 시가는 평당 50만원선이나 32만원에 매도 2억8천
·우주발사기지, 고흥군 봉래도 주거지역 답300평 7천만원
·사찰, 전원주택지. 남평검문소부근. 그린벨트 1560평 주택있음. 2억
매도·교환
·운암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46평 내년 8월 입주. 계약금을 2,500만원 납입했고, 현금 5천만원 더해서 교환원. 매도 3억3백
·곡성읍 못가서 서계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8분. 명당자리 전원주택지 483평, 7,500만원.
·장흥읍 별장용 가든 땅 1,883평 건평 108평 화가나 작가의 창작실로 적합. 조경완비 은행 1억5천, 현금 1억이상 필요하고 담보적은 물건과 교환 5억
매도
·공시지가에 매도. 충장로 4가 3층 건물 대지35 은행1억 매도 3억6,800만원
·금남로 5가 4층 건물 대지14 건평44 전세4,400만원 월95만원 매도 1억9천
·양동 복육탑 상가 여관 대지139 건평459 은행 2억5천 매도 6억6천
·충장로 5가 6층 건물 대지124 건평497 은행 5억5천 매도 12억
·전대후문 큰도로변 대지50 건평 120 2층과 지하는 공실 전세 8500만원 월230만원 매도 5억5천
구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교환·개발·건축 등의 각종 물건을 구하며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함께 일합시다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혼자서는 미약하지만 함께하면 무엇이든 못 이루겠습니까. 손잡고 함께할 분을 모시오니 찾아주시면 합니다.
-금남로 5가 우리은행과 엔타시네마 사이-

급매
국도변
♣나주·남평역 인근
♣남향투자 최적지
♣선산 최적지
♣22,353㎡ (7,000평)
♣주인직접 (평당3만)
010-7704-0052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법인 M&A(분할 합병)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 사
TEL : (02)587-7400
FAX : (02)597-8855
호남지사
TEL:(062) 226-6300
FAX:(062) 943-2244

급매
태양광 발전소 및 연수원 예정부지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관리지역 임야 85,950㎡
◉분할가능, 정남향
◉전력380kw 설치됨
◉매매가는 상담후 결정
연락처
062)236-0764
010-6889-7100

제1회 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차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10월 14일 1차시험 아쉽습니다.
전원 합격을 기대했으나 아쉽게 1명 불합격 외 응시자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2차시험은 전원 합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시험대비 수강생 모집
◆개강 : 11월 3일(토) 14:00~17:00, 4일(일) 14:00~17:00
11월 8,9,10일 총15시간 특강 (선착순 20명)
최종합격을 원하시면 마무리 특강을 꼭 받으시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안내접수전화 : (062)434-7858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의 영광을 드립니다.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중앙초등학교 후문앞) (062)434-7858